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차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일시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제2소회의실

(11시07분 개회)

○위원장 오성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11시07분)

○위원장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금번에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공무국외연수는 지난 8월 6일 개최된 중랑구의회 의원 총회에서 2018년 공무국외연수 실시에 관해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공무국외연수 실시가 결정되었고 공무국외연수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 임사회가 시작됨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중랑구 발전을 위한 여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선진 정책들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사항은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 여부,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 경비와 기간의 적정성 등입니다.

연수 목적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안목 배양과 자기개발에 있습니다.

금번 연수는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7박 9일로 중랑구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는 1인당 300만 원으로 약 5,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수 국가는 4차 혁명의 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비엔나가 있는 오스트리아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와 대기공해의 해결책인 저탄소 녹색정책으로 유명한 체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외연수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심사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들 하기가 뭐하니까 제가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8박 9일로 봤더니 7박 9일이랍니다.

비행기에서 오는 건 1박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갈 때도 그런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사 ○○○: 가는 첫날하고 오는 날 비행기 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체코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숙박하는 기간만 7박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돈을 떠나서, 경비를 떠나서 거기 가서 견문하고 보고 온 것을 우리 중랑구 발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장인 중랑구 발전에 대한 도서관 또 지역 역사관, 저탄소 녹색도시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 거기와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분명히 견문하고 오면 그것을 갖다 어디 분야에 접목을 했다 이것을 한 번쯤 의원님들끼리 협의하고 구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을 불러 놓고 이리이러한 데 접목을 시켜서 갖다 온 것이 이렇게 실적을 봤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한번, 그리고 질문은 우리끼리 하지 말고 팀장님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 위원: △△△ 위원입니다.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연수 갔을 때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저희들은 때마침 목2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통하고 또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게 접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차 없는 거리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함께 접목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제로 밖에서 비취지는 것하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본인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배울 것도 있겠지만 재충전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격려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격려차원으로 봐서 우리들이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오른 건 맞죠?

작년도에 가보셨으니까, 1인당 지원비가 작년보다 오르고, 17이니까 올랐습니다.

몇 퍼센티지 올랐습니까?

1인당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1인당 해외연수비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예산 편성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어차피 나가는, 재량권이 많이 의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뭔가 배울 수 있으려면 선진지를 갈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사실 많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면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서 실제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1인당 3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건 1인당 303만 원이 되고요, 저희 25개 의회 중에서 국외연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저희는 한 상위 30~4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로 한 30% 정도가 저희보다 많이 책정한 데가 있고 저희는 한 30~4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질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작년도에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체재비 중에 일비라는 걸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일비를 그날 가는 개인별로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일비라는 명목에 보면 개인적으로 나눠서 주는 줄 아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 좀 해주시죠.

○간사 ○○○: 일단은 의원님들 연수비 아까 말씀드린 1인당 320만 원에는 항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이 개념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비야 정해져 있는 거고요, 최저 상한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아주 높은 최고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산 규정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항공운임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항공운임은 실비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식비, 숙박비, 일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금액에 맞춰 식사라든지 숙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것이고요, 일비라는 것은 식비와 숙박비 이외에도 활동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경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까지 주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입장을 하실 때가 있다면 입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1일 사용되는 기본 경비 이런 개념으로 일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배동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질문 한번 제대로 해 주세요.

○△△△ 위원: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수 제가 지난번에 어차피 내실 있는 연수를 하려면 연수비용을 인상을 해서 정말 보고 배우고 와서 의원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연수비는 어쨌든 인상이 돼서 전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드릴 말씀은 딱 하나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구의원들께서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면 전혀 무엇을 보고 와서 거기에서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들을 중랑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후감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사 ○○○: 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15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거를 앞으로 우리 구 정책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올해 갔다 온 연수결과를 다음번 그때나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네.

○위원장 △△△: 우리 고나연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 위원: 네, 일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계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정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녀오신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심히들 하시지만 다녀오셔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변화되는 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민순 위원님 처음 한 말씀 그래도 기록을 남기고 가셔야죠.

한 말씀 하세요.

○△△△ 위원: 앞에서 얘기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위원님.

○△△△ 위원: △△△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 도의회의 레밍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염려가 있고 또 기대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외공무연수와 관련해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주변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뒤져보고 또 저 나름대로도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그런 염려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의 세금으로 단순한 외유성 일정이 되지 않도록 목적을 분명히 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 와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기왕에 보고 배우려면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담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현실적인 경비를 아낌없이 투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의회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을 이루는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민들의 뜻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방문지 기관에서 책임 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좋은 사례들을 담아올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시청에 가면 시청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담당 책임 있는 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올 수 있는 그런 국외공무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당사자이니까 당사자로서 우리 구민들의 지원이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배우려는 자세와 여러 준비들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역시 젊으신 위원님이시니까 내공이 강하십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작년은 너무 조금 주면서 우리들이 따지기가 뭘했는데 금년 이것보다 조금 더 내년도는 상향돼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좀 적은 금액이에요, 이것도요.

여기서 7박 9일 그러지만 8박 9일 우리가 어디 국내여행만 가도 이 정도는 들 겁니다, 아마.

항공비가 거의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공운임도 빠지고 나면 사실상 쓸 게 없는 것, 숙박비 좀 빼고 나면 쓸 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들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그래도 우리 공적인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내실 있게 쓰고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한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 위원**: 저도 회의록을 찾아봤었는데 계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미리 예약이 돼서 좀 더 경비를 낮춰서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간사** ○○○: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공무국외연수를 가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게 있었고 올해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전에 있던 7대 의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사정은 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8대 의원님들이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걸 준비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준비기간이 사실 조금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행 경비 같은 것을 저희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경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기왕에 준비를 한 만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이 돈의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냥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행정으로 접목해서 더 좋게 발전시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갔다 온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이 보고 오셔서 저희들도 눈에 띄진 않지만 많은 것을 보고 오셔서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시는 곳이 이번에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과 관련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연수가 정말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우리 중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연수 갔다 와서 보름 이내에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보고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우리 중랑구로 적용한 사례가 나온다면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서 연말이 되든 아니면 꼭 공무국외연수 가기 위한 허가받는 그 심의가 아니더라도 갔다 온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여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위원장 △△△: 네, △△△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중랑구가 발전하고 중랑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 다녀오고 나서 많은 정책을 접목을 해서 실제로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이렇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구에서 모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 또 구의원님들, 주민들과 함께 중랑구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원님들도 함께 정책을 발표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접목해서 중랑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갔다 오셔서 전혀 그런 상황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또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수가 제대로 된 연수를 받아서 우리 중랑구에 같이 정책을 접목시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복한 중랑구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수가 헛되이 되지 않고 경비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고민하고 더 열심히 개발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성환 고나연 김완태 박민순

박열환 배동진 장신자

○출석공무원 3인

사 무 국 장 황 중 석

의 정 팀 장 박 중 석

사 무 국 직 원 이 영 진